# 독일인 스님의 '암송시험' 합격

## 日법상종 1천년 전통 수의의식 도전해

박영빈 객원기자

1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법상종의 암송시험인 '수의(竪義)'를 통과한 독일인 스님이 화제다. 11월 2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유서 깊은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독일출신의 자이레 교에이(Saile 暁映)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지난 11월 13일 밤, 일본 나라시에 소재한 천년고찰 코후쿠지(興福寺)에서는 법상종의 개조인 규기대사의 유덕을 기리는 법회, '자은회(慈恩会)'에 맞춰 특별한 행시가 열렸다. 법상종의 교학을 구두로 시험하는 '수의(竪義)' 의식이다. 코후쿠지의 수의의식은 981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온 유서 깊은 행사다.

수의의식은 철야로 진행되며 법상종의 논서에서 총 10문제가 출제된다. 초기에는 실제 질의응답이었으나, 후대로 가면서 문제지와 답안지가 확정돼 수험자는 모든 문제의 답안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암송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막대한 양의 한문암기가 필수이고 10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되기에 모든 문제를 급제한 이는 여태껏 없다.

수의의식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약 한 달간 시험의 답안지를 모두 암기한다. 단순 암기가 아닌 암송시의 운율이나 예법을 교육받는 습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 기간 중에는 오후불식과 묵언을 지켜야 한다. 누워 자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도량의 모든 전각에서 예불을 올리는 등의 수행이 이어진다.

**철야로 이어지는 법상종 의식**

**한문논서 10문제 무작위 출제**

**생애 단 한 번만 응시 가능해**

**"외국인 출가자 합격 이례적"**

이처럼 특별한 시험이기에 법상종의 승려는 노소를 불문하고 생애 단 한 번만 응시할 수 있다. 그 무게가 막중해 수험자가 불합격 시 재적사찰에서 추방된 전례도 있다. 단 합격자는 어엿한 학승으로 인정받고, 본산 산내 암자의 주지가 될 수 있는 등용문이기도 하다. 이런 수의의식에 법상종의 본산인 코후쿠지 소속의 스님이 수험자로 나선 것은 8년만이다.





법상종 수의시험에 합격한 자이레 스님. 오른쪽 사진은 흰 가사장삼을 수하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스님.

이번 시험에 합격한 자이레 교에이 스님(41)은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일본고전문학을 전공했다. 이후 오사카 외국어대학과 버클리 대학의 대학원에서 불교문학과 불교학을 공부했다. 2010년 일본중세 법상종의 유식학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교토의 류코쿠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것을 인연으로 이듬해 코후쿠지로 출가했다.

스님은 이래로 코후쿠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불교와 법상종의 교학에 대한 설명, 대중강연 등 다양한 포교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 가운데 더욱 깊은 교학적 이해와 스스로의 수행을 다잡기 위해 수의시험에 응시했다.

스님은 시험을 합격한 소감에 대해 "꼭 동아리나 스포츠클럽의 합숙훈련을 마친 느낌이다. 한창 예비수행과 문답 중에는 매우 엄격했지만, 끝나고 보니 뭔가 알 수 없이 쓸쓸하다"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처음 수의에 응시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혹독하다며 걱정했지만, 나로서는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의 수행이었다"고 전체 과정을 회상했다.

코후쿠지 측은 "외국인 출가자가 수의에 합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자이레 스님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 "(수의시험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불교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소개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중독자, 자비 명상으로 '제2인생' 찾다

## 英 노팅엄 불교센터, '영적 각성' 통해 중독 치료

영국 노팅엄 불교 센터(Nottingham Buddhist Centre)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자들의 '환골탈태의 장'으로 거듭났다. 약물 · 알콜 중독자들을 위한 불교 명상법과 요가 등을 실시해 그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중독 치료를 돕는 것.

노팅엄포스트는 11월 27일(현지시간) "1993년 설립된 노팅엄 불교 센터에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약물 · 알콜 중독자들의 '파괴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었는지 알아봤다"면서 노팅엄 불교 센터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센터는 19세기 레이스 마켓(Lace Market) 지역의 낡은 레이스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 불교 명상, 요가, 불교 문헌 공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일주일 동안 평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노팅엄 불교 센터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넘은 사카나마(Saccanama)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스님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라며 "우리의 불교는 조금 더 실용적"이라고 소개했다.



노팅엄 불교센터에서 명상을 통해 자신의 악습을 바라보는 내담자들.

사진출처=노팅엄포스트

그러면서 사카나마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더 긍정적이고 통합적이며 평온한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고 했다.

노팅엄 불교센터가 약물 · 알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명상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악습'을 스스로 바라보고 깨닫게 한다.

16년 전 헤로인 등 약물과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한 맨디 콘웨이(56 · 여) 씨는 "사고의 낡은 파괴적인 패턴을 보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된다. 나는 50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칼미크 출신 '자야 판디타' 기리다

## 판디타 탄신 420주년 기념 칼미크 국제불교 학술대회



러시아 칼미크 자치공화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모습.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불교도가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에서 뜻깊은 학술대회가 열렸다. 11월 19일 불교전문 인터넷 외신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러시아의 칼미크 자치공화국에서 열린 국제불교 학술대회의 모습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의 칼미크 자치공화국 쿠룰시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는 11월 15~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유라시아의 불교문화와 영적인 유산: 역사 문화적 흐름의 문헌과 구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칼미크 출신의 저명한 논사 '자야 판디타 남카이 잠초(1599~1662)' 스님의 탄신 42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미국 · 캐나다 · 독일 · 중국 등 10여 개국의 불교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칼미크 대학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측은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중 하나는 러시아와 해외 과학계의 관심을 불교의 문학적 유산보존에 환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회사를 맡은 러시아-몽골 달라이라마 대표부 대사인 뗄로 린포체는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철학이자 과학"이라고 강조하며 구 소련당시에도 러시아에서 불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발표된 주제들은 대부분 칼미크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불교 전래사, 몽골어로 번역된 티베트 불전, 자야 판디타 스님의 저술과 문화적 영향 등이었다. 또한 구소련 공산혁명과 함께 역사에서 잊힌 자야 판디타의 세부적인 인물 연구는 참석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러시아의 젊은 불교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자야 판디타 스님은 몽골족이 진출한 최서단인 오이라트 지방의 코슈트 부족에서 태어났다. 1615년 티베트로 유학을 떠난 스님은, 당시 최고의 논사이자 수행자였던 4대 판첸라마의 문하에서 4년간 교학을 연찬하는 등 약 20여 년간 수행과 교학연구에 집중했다.

오이라트로 돌아온 스님은 오이라트, 칼카 등 서북부 몽골부족은 물론 칼미크 지방까지 포교에 힘썼다. 자야 판디타의 가장 큰 업적은 당시 불명확했던 몽골어 문법과 문자를 정립한 문법서의 편찬이다. 이 문법서는 1940년대까지 칼미크와 몽골에서 사용됐다. 또 186권의 불경과 논서를 티베트어에서 몽골어와 오이라트어로 번역했으며, 이 번역서들은 근대까지 칼미크 지방에서 강원 교재로 사용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 중인 로힝야족들. 사진출처=VOA

# ICJ 제소된 미얀마 "총력 기울여 방어"

## 로힝야 학살에 감비아 소송… 미얀마 법률 검토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 감비아가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를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이에 대해 총력 방어전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25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우키아우 틴트 스웨 국가자문역실 장관과 우 키아우 틴 국제협력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감비아의 소송을 국익과 관련한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고 법률 전문가들로 법률팀을 구성해 감비아 주장에 정면 반박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소송 전 과정에서 국가 대표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스웨 국가자문역실 장관은 부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감비아는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